

#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평화롭게 가십시오

2022년 7월 17일 설교

누가복음 7:36-50

크리스 식스 목사

우리는 올해 New City Catechism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믿는 것에 대한 훌륭한 요약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29번 문제를 읽고 그 답을 함께 읽을 것입니다.

## 질문 29: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여전히 모든 악에 기울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공로 없이 오직 순수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고 그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십니다.

오늘 설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순수한 은혜가 필요한 두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회개하고 믿으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7장 36-50절을 읽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36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함께 식사하자고 청하매 예수께서 자기 집에 들어가 앉으시니

37 그 성에서 어떤 음행한 여자가 그가 거기서 음식을 먹는다는 말을 듣고 값비싼 향유를 채운 아름다운 옥합을 가지고 오매

38 그녀는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다.

그녀의 눈물은 그의 발에 떨어졌고 그녀는 머리털로 닦아주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의 발에 계속 입맞추고 향유를 발랐습니다.

- 39 자기를 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어떠한 줄을 알았으리라  
그녀는 죄인이다!”
- 40 그러자 예수께서 그의 생각에 대답하셨다.  
”시몬,” 그가 바리새인에게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가세요.” 사이몬이 대답했다.
- 41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 남자가 두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한 사람에게는 은 500개, 다른 사람에게는 50개였습니다.  
42 그러나 둘 다 그에게 갚을 수 없었으므로 그가 친절하게도 둘 다 용서하여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 후로 누가 그를 더 사랑했을 것 같습니까?”
- 43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더 큰 빚을 탕감하여 주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 44 이에 예수께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갔을 때에 너는 내 발의 티끌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그는 자기 눈물로 발을 씻기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느니라.  
45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그녀는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느니라  
46 내가 내 머리에 바르려고 감람유의 예의를 버리고 내 발에 진귀한 향유를 부었도다
- 47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죄가 많고 그 많은 것이 사함을 받았으므로 그가 내게 많은 사랑을 베풀었느니라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작은 사랑을 보일 뿐입니다.”
- 48 이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49 식탁에 앉은 사람들이 서로 말하되 두루 다니며 죄를 사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50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함께 이사야서 40장 8절을 읽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이 생명과 진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께 옵니다. 예수님, 우리는 당신이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당신을 경배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도록 열어 주소서. 아멘.

36절은 우리에게 장면을 제시합니다.

36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함께 식사하자고 청하매 예수께서 자기 집에 들어가 앉으시니”

시몬이 예수님께 시몬의 집에서 자기와 함께 저녁을 먹자고 간청한 것에 주목하십시오. 2,000년 전에는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전 세계의 많은 문화권에서는 함께 식사를 하면 사람들 사이에 유대가 형성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주 One Voice Fellowship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매우 진지하고 매우 보수적인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거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또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과 같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하셨지만 바리새인들에게 배척을 받은 사람들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의 두 장을 뒤돌아보면 누가복음 5:27-32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7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8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라가니라

29 레위가 그를 자기 집에서 크게 잔치하매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의 큰 무리가 그들과 함께 앉았더라

30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31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32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사람들은 자신이 아프고 도움이 필요할 때 의사를 찾습니다. 예수님은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큰 질문은 “당신은 당신을 치유하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까?”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7:37-39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7 그 성에서 어떤 음행한 여자가 그가 거기서 음식을 먹는다는 말을 듣고 값비싼 향유를 채운 아름다운 옥합을 가지고 오매

38 그녀는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다.

그녀의 눈물은 그의 발에 떨어졌고 그녀는 머리털로 닦아주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의 발에 계속 입맞추고 향유를 발랐습니다.

우리는 이 여자의 이름을 모르지만 적어도 두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역 사회에서 죄 많은 평판을 받았습니

다. 그녀가 매춘부였을 가능성이 매우 큼니다. 우리가 아는 두 번째 사실은 그녀가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에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으며, 예수님은 그녀에게 용서와 용납을 베풀었습니다. 여자의 눈물과 입맞춤은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의 반응이다. 그녀는 아마도 그녀가 전생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사용한 값비싼 향수 작은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이제 그녀의 뒤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희망, 새로운 우선 순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귀중한 향수를 자신의 인생을 바꾼 남자의 발에 두는 것이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여성의 행동에 만찬에 참석한 사람들이 당황한 것은 이해할 만하다. 그녀는 평판이 좋지 않고 예수라는 이 유대인 교사에게 매우 개인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39절을 보십시오.

39 자기를 칭찬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어떠한 줄을 알았으리라  
그녀는 죄인이야!””

아마도 시몬은 예수님이 그녀의 고객 중 한 명이라고 의심할 것입니다. 또는 시몬은 예수님의 판단력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몬이 예수님과 그 여자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볼 때 그의 마음을 보기 시작합니다. 시몬이 ”스스로” 이런 말을 한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읽으실 수 있고, 시몬의 무언의 생각에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누가 40-43절에서 보고하는 것을 봅시다.

40 “예수께서 그의 생각에 대답하셨다.

”시몬,” 그가 바리새인에게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가세요.” 사이먼이 대답했다.

41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 남자가 두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한 사람에게는 은 500개, 다른 사람에게는 50개였습니다.

42 그러나 둘 다 그에게 갚을 수 없었으므로 그가 친절하게도 둘 다 용서하여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 후로 누가 그를 더 사랑했을 것 같습니까?”

43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더 큰 빚을 탕감하여 주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로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비유는 사람의 가족을 입은 진리와 같습니다. New City Catechism은 52개의 질문과 답변으로 성경 진리의 요약을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합니다. 그러나 교리문답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취하셔서 그것을 매우 개인적인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선지자 나단도 다윗 왕에게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여 그 남편을 죽였습니다. 나단은

다윗이 지은 끔찍한 죄를 깨닫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양을 많이 소유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그는 가난한 농부의 어린 양을 훔쳤습니다. 그 이야기는 David의 교만과 부정을 깨고 그가 한 일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밧세바와 우리에게 지은 죄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시몬과 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비유에 빛진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은화는 로마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로마 동전은 하루의 평균 급여였습니다. 보통 사람은 이 은화 50개를 벌기 위해 50일을 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500일 동안 은화 500개를 모으십시오. 분명히 은화 500개를 빛진 사람은 값아야 할 빛이 매우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용서받은 사람은 사랑으로 반응합니다. 그것이 핵심이야.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 사이에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듬뿍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눈을 자기 마음으로 돌이키고자 하여 용서받은 빛진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절반밖에 끝나지 않았다. 예수님은 그것을 완전히 설명하시기 전에 시몬에게 그 여자를 실제로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도록 권하십니다. 이제 누가복음 7:44-47을 보십시오.

44 예수께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갔을 때에 너는 내 발의 티끌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그는 자기 눈물로 발을 씻기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느니라.  
45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그녀는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느니라  
46 네가 내 머리에 바르려고 감람유의 예의를 버리고 내 발에 진귀한 향유를 부었도다  
47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죄가 많고 그 많은 것이 사함을 받았으므로 그가 내게 많은 사랑을 베풀었느니라  
그러나 적게 용서받는 사람은 작은 사랑을 보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47절에서 여자의 죄가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시몬이 자신의 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시몬에게 그의 죄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Simon은 그가 “50코인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이먼은 그 여자가 ‘500코인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녀를 심판한다. Simon은 그가 그녀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몬은 예수님이 가짜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39절에서 시몬은 ”이 사람이 선지자였더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어떠한 줄을 알았으리라”고 생각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시몬이 자신이 명확하게 보지 못한다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눈먼 사람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다른 맹인에게 치료법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44절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 봐요.

44 “예수께서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여자를 보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누가는 예수께서 그 여자를 보고 계시지만 시몬에게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실험을 해보자. ”이 피아노 보이세요?”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아노 봤어? 물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 여인을 처음으로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시몬이 그녀의 죄 많은 과거가 아니라 그녀의 현재 행동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시몬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시몬이 사랑과 연민으로 사람들을 분명히 볼 수 없다면 영적으로나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그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사랑은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장의 앞부분에서 누가는 예수님과 나인이라는 동네 근처에 있는 한 과부에 대해 알려 줍니다. 누가복음 7:12-13을 보십시오.

12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오실새, 보라, 죽은 사람을 메고 오는지라.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로, 그녀는 과부였고,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있었다.

13 여호와께서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울지 말라 하시니

저자 폴 밀러는 13절에서 사랑의 세 단계가 있음을 관찰합니다. 보고, 느끼고, 행동하십시오. 예수님은 과부를 보셨습니다. 그는 그녀를 완전히 보았고 그녀의 고통과 상실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영어 단어 연민은 ”함께 느끼다”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과부의 상황을 이해했고 예수님의 마음은 과부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사랑의 세 번째 단계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과부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신 다음 죽은 아들을 부활 시키셨습니다.

사랑은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시몬은 예수님이나 그 여인을 진정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습니다. 시몬은 자신의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거나 볼 수 없습니다. 교만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교만을 부수고 우리의 죄 많은 마음을 보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우리의 영적 고통을 보기를 즐기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회개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이해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영어로 우리는 종종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또는 ”그림은 천 마디 말의 가치가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당신의 언어로 비슷한 말을 할 것입니다. 시몬이 예수님께 기본적인 후대를 나타내지 않은 것은 큰 소리로 말해줍니다. 시몬은 자신이 예수님보다 낮고 여자보다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행동이 이를 드러낸다. 예수님은 시몬이 자신의 죄의 깊이를 알게 하여 시몬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모두 500원짜리 죄인입니다. 숫자는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값을 수 없는 빛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저와 함께 이 차트를 보십시오. 맨 윗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나타냅니다. 결론은 우리의 죄에 대한 우리의 이해입니다. 당신이 50코인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단지 50코인의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에 대한 당신의 이해는 작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은 작을 것입니다.

시몬은 자신의 거룩함이 예수님이나 여자보다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시몬은 자신에게 구세주나 큰 구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몬은 자신에게 약간의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몬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데 50코인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시몬은 남에게 베푸는 사랑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자신이 500원짜리 죄인임을 이해합니다. 그녀는 또한 예수님께서 그녀를 매우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많이 용서하셨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500원짜리 빚을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그녀는 예수님께 많은 사랑을 나타냅니다. 500코인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예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남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시몬은 자신도 500코인의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친구들이여, 성령께서 당신의 죄를 드러내실 때 그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가 당신의 죄의 새로운 차원과 깊이를 보여주고 있다면, 당신의 눈과 귀를 닫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친절하시고 매주 내 죄를 더 많이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과 용서를 받았는지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를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이 설교를 마쳐야 하므로 이제 마지막 세 구절을 보아야 합니다.

- 48 이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 49 식탁에 앉은 사람들이 서로 말하되 두루 다니며 죄를 사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 50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시몬의 죄 많은 교만 때문에 그는 예수님에 관한 실재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말없는 생각에 대답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 방에 있는 유일한 참 선지자임을 밝히셨습니다. 이 마지막 구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선지자 이상임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임을 계시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녀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위로하시고 그녀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상기시키십니다. 분문을 자세히 보면 아마 이 사건 이전에 그녀가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여성의 사랑스러운 행동이 그녀가 저녁 식사

에 오기 전에 용서받고 받아들여졌던 마음을 드러낸다고 믿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예수님께서 그녀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시자 놀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므로 50절은 여자에게 하신 말씀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만찬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권위를 강조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그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는 그녀의 공동체에서 버림받고 멸시받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과 삶을 바꾸셨습니다. 이제 그는 그녀가 지역 사회에서 대우받는 방식을 바꾸고 싶어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메시지가기도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신뢰하여 당신의 죄를 용서했다면 당신은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를 안고 이곳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그럽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 **이제 그에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용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을 계속해서 드러내 주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더 많이 볼수록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성찬의 식탁이 우리가 받은 사랑의 가시적인 그림임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영적으로 격려하고 먹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